

삼성 KPMG

ISSUE MONITOR

제108호

May 2019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4089

gyulimkim@kr.kpmg.com

조민주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589

minjoocho@kr.kpmg.com

최연경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769

yeonkyungchoi@kr.kpmg.com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3
오픈뱅킹의 개념 및 부상 배경	4
오픈뱅킹의 개념	4
오픈뱅킹 정책의 도입 배경	5
오픈뱅킹, 개방형 혁신의 기회	7
오픈뱅킹의 리스크, 고객정보보호와 정보보안	8
국내외 오픈뱅킹 정책 동향	9
EU와 영국, 고객정보에 대한 오픈 API의 공개 의무화와 정보보호 법제화	10
미국, 시장 자발적 차원에서 금융권의 정보공유를 위한 원칙 제시	14
호주, 조회형 API 공개를 4대 은행에 우선적으로 의무화	15
싱가포르·홍콩·일본, 오픈뱅킹의 도입 및 노력 의무 부과	16
한국,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에 이어 오픈뱅킹의 법제화 추진	19
글로벌 금융권의 오픈뱅킹 대응	23
기존 금융권의 BaaP 전환과 핀테크기업의 또 다른 혁신 모색	23
핀테크기업의 오픈뱅킹 활용과 사업화	24
기존 금융권의 적극적 오픈뱅킹 활용과 대응	26
국내 금융권의 오픈뱅킹 대응	29
은행권 공동 API를 활용한 핀테크기업의 출현.....	29
국내 은행의 오픈 API 구축과 경쟁을 위한 준비	30
오픈뱅킹을 통한 협업과 경쟁의 시대 도래	33
오픈뱅킹 시대의 본격적 도래	33
은행, 위기 속의 기회 모색	35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고객 금융데이터의 활용도와 서비스 질 제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을 위해 각국은 금융기관 외 제3자의 금융데이터와 금융결제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는 2016년 공동오픈플랫폼 구축에 이어 2019년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권의 금융데이터와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도 오픈뱅킹 도입으로 금융산업 내 협업과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오픈뱅킹 관련 정책 동향과 주요 기업들의 대응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Executive Summary

■ 오픈뱅킹의 개념 및 배경

- 오픈뱅킹(Open Banking)은 고객의 사전 동의 하 고객 금융데이터를 은행 외 제3자가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①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② API의 개방(Open API), ③ 고객 데이터와 금융결제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핵심요소로 함
- 오픈뱅킹은 금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금융산업 내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 등을 위해 각 국가에서 입법화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은 개방형 혁신의 일환으로 오픈뱅킹을 주목하고 있음

■ 국내외 오픈뱅킹 정책 동향

- 유럽연합(EU)은 개정 지급결제 서비스 지침(PSD2)을 통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영국은 9개 은행 대상 오픈 API 도입을 의무화하여 시행 중이며, 호주 역시 4대 주요은행을 시작으로 단계적 오픈뱅킹을 추진할 계획임
- 미국은 오픈뱅킹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시장 자발적으로 금융권에서 오픈 API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며, 2019년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① 오픈플랫폼 확대와 공동결제망 개방, ② 오픈뱅킹의 법제화, ③ 핀테크기업의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글로벌 금융권의 오픈뱅킹 대응

- 글로벌 주요 은행은 '플랫폼으로서의 banking(BaaP)' 전환을 위해 API 개발자용 포털 개발, 신기술과 관련된 API 활용 등 오픈뱅킹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핀테크기업과의 협업을 모색함
- 글로벌 주요 핀테크기업은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의 오픈 API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사의 API를 외부 개발자에게 개방하여 한 차원 높은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

■ 국내 금융권의 오픈뱅킹 대응

- 국내 주요 은행 및 은행그룹은 모두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 신한금융그룹, KEB하나은행 등은 개별적으로 오픈 API 플랫폼을 운영 중임

■ 오픈뱅킹을 통한 협업과 경쟁의 시대 도래

- 오픈뱅킹 시행은 고객과 핀테크기업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축이 이동되는 한편, 금융업의 분업화와 재결합을 촉진하면서 핀테크기업 등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은행권이 BaaP로서 고객에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과 이에 적합한 오픈 API 전략 등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함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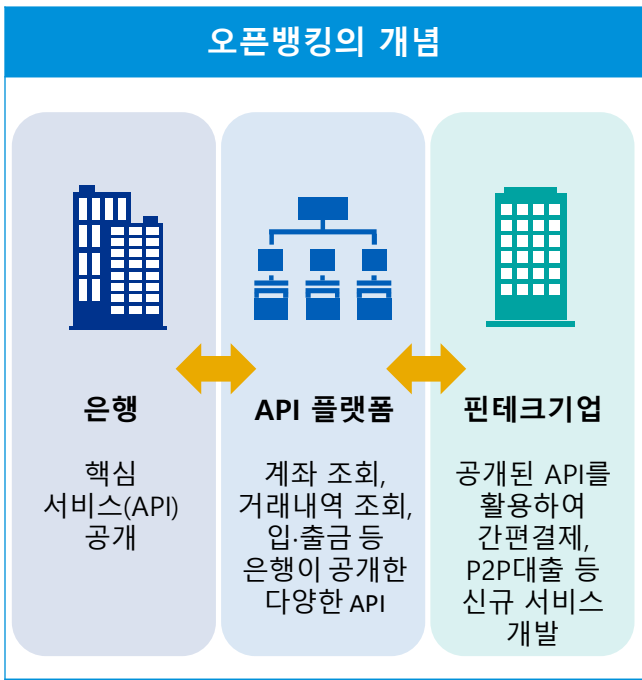
오픈뱅킹의 개념 및 부상 배경

“ 오픈뱅킹 (Open Banking) 이란 고객의 사전 동의 하에 고객 금융데이터를 은행 외 제3자가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통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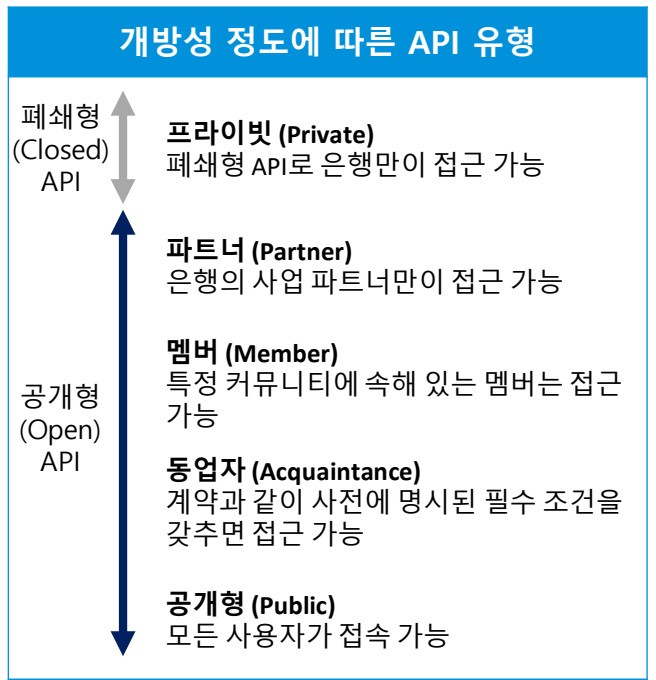
오픈뱅킹의 개념

최근 유럽연합(EU)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 금융데이터를 개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Open Banking)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픈뱅킹이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금융데이터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 TPP)에 공개하여 제3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통칭한다. 국가별 정책 상 공개하는 금융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의무화 정도는 상이하나, 기존 금융기관이 독점적으로 보유하던 데이터에 대한 제3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개별 글로벌 금융기관 역시 오픈뱅킹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핀테크기업 등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활용하는 추세이다.

오픈뱅킹은 공통적으로 ① 금융데이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② API의 개방, ③ 금융결제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라는 요소를 핵심으로 한다. 첫째,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고객 금융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금융데이터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제공하지만 금융기관이 작성·보관하게 되어 데이터의 소유권을 정확히 판단해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 주체인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정보제공기관)이 제3자(정보수취기관)에게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법화되고 있다.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Source: EBA Working Group,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 오픈뱅킹 정책은
 ①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강화,
 ② API의 개방,
 ③ 금융결제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핵심 요소 ”

둘째, 오픈뱅킹은 기술적으로 은행이 API를 공개하는 ‘오픈(Open) API’를 통해 구현된다. API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게 미리 정한 통신 규칙으로, 권한 범위에 따라 공개형 API(Open API)와 폐쇄형 API(Closed API)로 나뉜다. 기상정보가 API를 통해 공개되면, 이를 개발자가 서비스에 맞도록 활용하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날씨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오픈 API 활용 사례이다. 이와 유사하게 금융권에서 오픈 API는 참여 금융기관이 설계한 고객의 거래내역조회 API, 자금이체 API 등에 따라 금융회사 시스템에서 실행된다. 예를 들어, 핀테크기업과 같은 제3자가 API에 따라 사전에 약속된 ‘송금 명령어’를 금융회사 시스템에 전송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송금 명령어에 따라 송금을 실행하는 것이다. 은행이 API를 개방·공개(Open)하게 되면 개발자는 제공된 데이터를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에 맞도록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개방하는 API 종류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된다. 결국 오픈 API는 제3자가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 금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로서 종류와 범위, 권한은 다양한 형태가 된다.

셋째, API 개방은 기능적으로 금융결제망 또는 금융공동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 비금융기관이 고객 금융데이터를 조회하고 지급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인프라인 금융결제망에 접속해야 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금융거래의 송수신과 지급결제업무는 각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한 네트워크인 ‘금융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은행 전산망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해외의 경우 주로 중앙은행 주도로 소액자동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 ACH)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금융기관끼리 협의한 사설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에 접근하려면 해외에서는 통상 개별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이용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①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는 은행과 제휴를 맺는 펌뱅킹(Firm Banking) 방식을 선택하고 기술 요건이 상이한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거나 ② 금융결제원의 오픈 API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두 가지 모두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조회형·실행형 API 등을 공개하면 금융공동망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기능적으로 조회형 API는 금융공동망 내 고객의 계좌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등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고, 실행형 API는 고객을 대신하여 제3자가 자금이체·송금·결제지시를 수행하는 기능으로써 기존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비차별적으로 금융공동망에 접근하여 낮은 비용으로 지급결제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정책의 도입 배경

오픈뱅킹에 대한 정책이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철학적 배경은 1) 금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2) 금융산업 내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 3) 금융산업 경쟁 촉진 및 핀테크기업 등의 육성, 4)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효용 증대로 정리할 수 있다.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첫째, 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 하에 기존 금융기관에 머물던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도록 하여 금융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금융기관에 집적되는 고객 금융데이터는 방대한 반면, 정보 주체인 고객이 금융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거래 및 투자 내역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반면, 고객은 자신의 정보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인 입장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규모별로 축적되는 데이터 양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상이하다. 대형 금융기관일수록 고객 금융데이터 축적량이 많고, 이를 효과적으로 마케팅 등에 활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 금융산업 내 지위가 공고해지게 된다. 반면 중소형 금융기관이나 핀테크기업은 고객 기반이 약해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아 경쟁에 있어서 열위에 놓인다. 디지털 시대 경쟁력의 출발인 '금융데이터'를 정보 주인이 충분히 활용하고, 경쟁력 열위에 놓인 혁신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로 판단된다.

“ 오픈뱅킹은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 촉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소비자의 효용 증대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 ”

둘째, 비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데이터 및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산업 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실행형 API 개방은 핀테크기업 등 제3자가 결제지시를 낮은 비용으로 차별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결제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이미 유럽에서 시행된 PSD는 EU 내 단일유로결제지역(Single Euro Payment Area)를 구축하여 표준화된 유로화 지급결제수단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유럽 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유럽은 PSD2를 추진하여 핀테크기업 등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시 기존 은행권에 의존하지 않고 고객 금융데이터를 조회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셋째, 오픈뱅킹을 통한 핀테크기업 및 금융기관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핀테크기업이 오픈 API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혁신을 추구하기도 하며, 기존 은행이 협업 차원에서 오픈 API를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내외 계좌통합조회(account aggregator) 및 자산관리 통합 솔루션 등이 고객 계좌를 통합적으로 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 기술은 고객이 제공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해당 핀테크기업이 개별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고객의 정보를 모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은행샐러드와 같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으나, 데이터 수집 속도가 느리며, 개별 업체가 제휴한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데이터가 집적되고, 일부 고객 인증정보를 보관하여 사용하므로 고객 인증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하여 오픈 API는 고객 금융데이터 전송에 특화되어 데이터 수집 속도가 빠르며, 고객이 동의한 정보에 대해서만 수집하므로 보안상에서 안전하다.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더욱이 핀테크기업은 공동의 표준 API로 데이터를 전송 받을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고객 금융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픈 API는 핀테크기업이 기존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만으로도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제공하여, 핀테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각국 정부는 오픈뱅킹으로 금융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택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금융포용성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기능별 또는 기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통합되어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비교가 용이해지고 타사 상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융결제망 비용 경감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융 수수료도 인하되어 소비자는 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저렴하게 사용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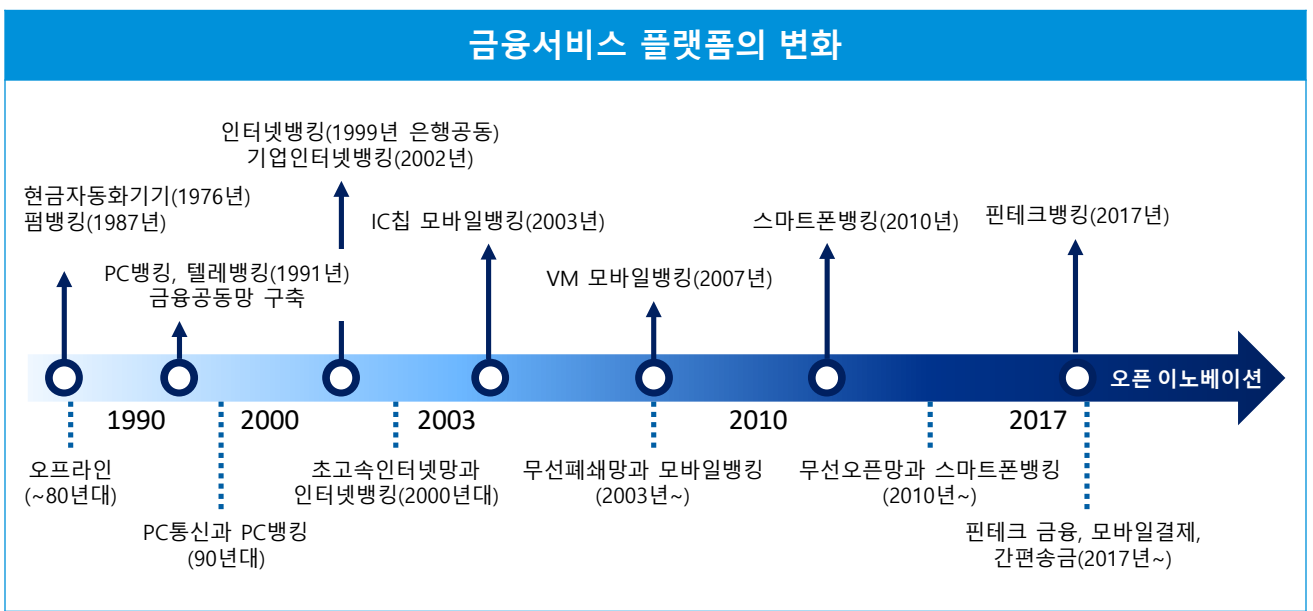
“ 기존 금융기관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 수단으로 오픈뱅킹에 주목

”

오픈뱅킹, 개방형 혁신의 기회

무엇보다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동시에 핀테크기업, 비금융기관 등이 금융산업에 진입하면서 2010년대 이후 핀테크뱅킹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다. 증가하는 제3자의 역할에 비하여 은행 등은 종합금융서비스(Integrated financial services) 제공자로서 역할은 축소되고 내부자원을 핀테크뱅킹을 주도하는 핀테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공유하면서 새로운 상품, 서비스 및 채널을 만들어 내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필요성을 높아지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 스스로가 API를 공개하며 외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이유이다.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변화



Sourc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오픈뱅킹의 리스크, 고객정보보호와 정보보안

“ 오픈뱅킹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관련 리스크 확대 ”

API의 공개는 기존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를 이용하던 구조에서 이용기관인 제3자가 추가되어 데이터 사용자와 관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공동 오픈 플랫폼 및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외부에 오픈 API를 제공하므로 제공하는 API 종류, 오픈 API 시스템의 설계,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데이터 이용 구조와 데이터 종류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유되는 데이터는 고객의 민감정보와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고객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이슈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변조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API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침해 당하거나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이용기관으로 가장하여 접근하는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이용기관은 오픈 API 관련 정보처리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관리 미흡으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한 중소형 핀테크기업이 오픈 API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오픈 플랫폼이나 자체 API를 제공하는 이용기관의 적격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악용의 의도를 지닌 제 3자에게 제공된다거나 고객 확인 의무 미준수 등에 따른 규제 위반 가능성에도 노출된다. 더불어 단일 시스템을 통해 오픈 API가 제공될 경우 트래픽 등 기술적 사항으로 인한 리스크 역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용기관, 제공기관 및 시스템 운용자는 보안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오픈뱅킹 관련 주요 위험 요소

이용자 영역	이용기관 영역	제공기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단말기의 악성코드 감염 • 변조 애플리케이션 유통 •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통한 악의적 행위 시도 • 이용기관 권한부여에 대한 이용자 인식 부족 • API를 통해 정상적으로 획득한 계좌 정보의 침해 • 이메일 피싱, 가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이용기관으로 가장 • 가짜 운영기관으로 가장 • 이용자 단말기의 도난 및 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 API 관련 정보처리 시스템의 악성코드 감염 • 정상적으로 획득한 계좌정보의 침해 • API 데이터를 제3자에 제공하는 이용기관에 대한 관리 미흡 • 이용기관 시스템 침해로 인한 오픈 API 접근 키의 도난 발생 • 오픈 API 이용 애플리케이션 침해/오류로 인한 비정상적 API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확인의무 미준수 • 데이터 보호 미비로 인한 해킹 등 • 정당한 이용기관 확인 미흡

Source: 금융보안원, 금융권 오픈 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를 참고하여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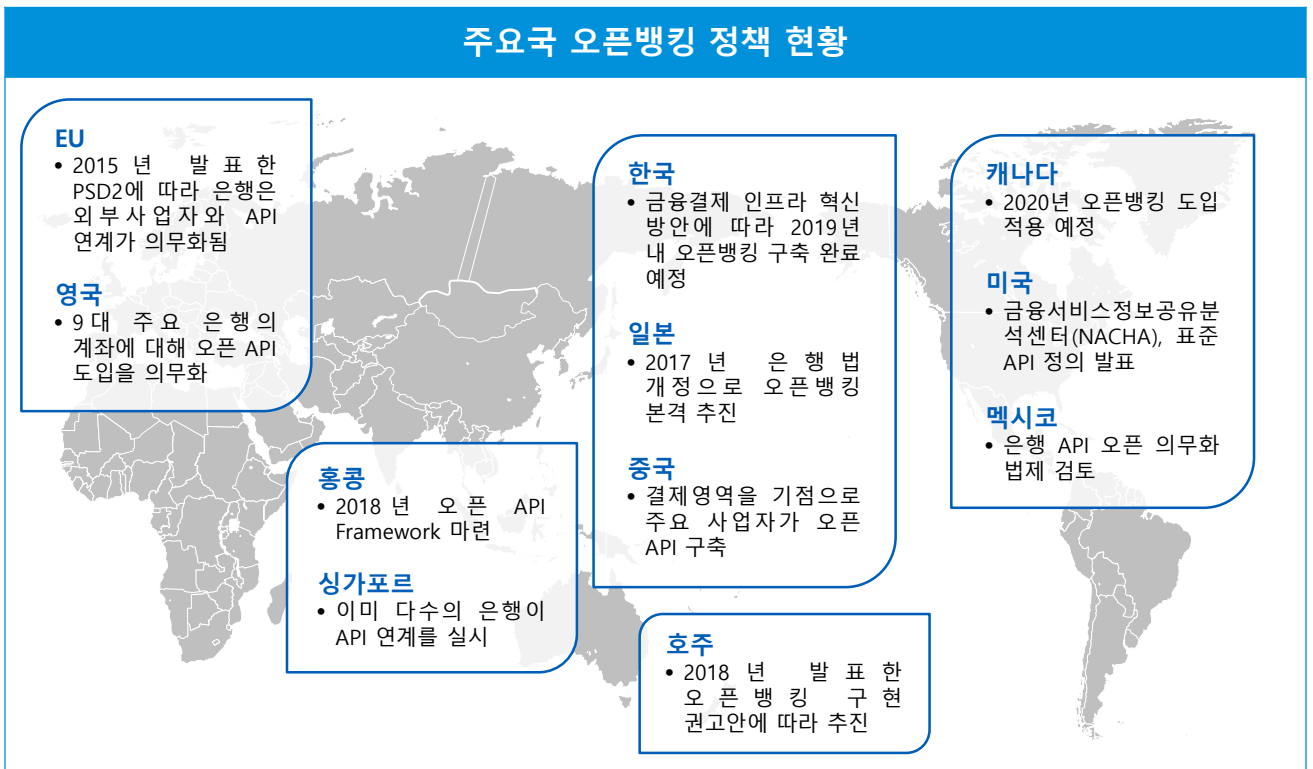
국내외 오픈뱅킹 정책 동향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관련 법 개정 및 마련 등을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고객 금융데이터를 API로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 또는 준비 중이다. 개별 국가별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 참여 금융기관이나 참여 조건 등은 다양하다. 그러나 ① '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 하에 ② '정보보유기관'인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수취기관'인 핀테크기업 등 제3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③ 주요 방법으로 오픈 API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의 효과 기대로 각국 정부는 오픈뱅킹 입법화 추진 ”

유럽연합(EU)의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 지침을 준비·개정하여 결제사업자의 성장과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영국은 오픈뱅킹 정책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오픈 API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최초로 오픈뱅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일본이 2017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의 API 구축 노력을 명시화하였다. 호주와 홍콩 또한 오픈뱅킹 관련 정책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고객 금융데이터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되 오픈뱅킹 정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2016년 세계 최초로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한국은 2019년 중 공동 오픈 API를 핀테크기업 및 모든 은행에 전면 개방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금융결제망에 대한 개방을 골자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 오픈뱅킹 정책 현황



Sourc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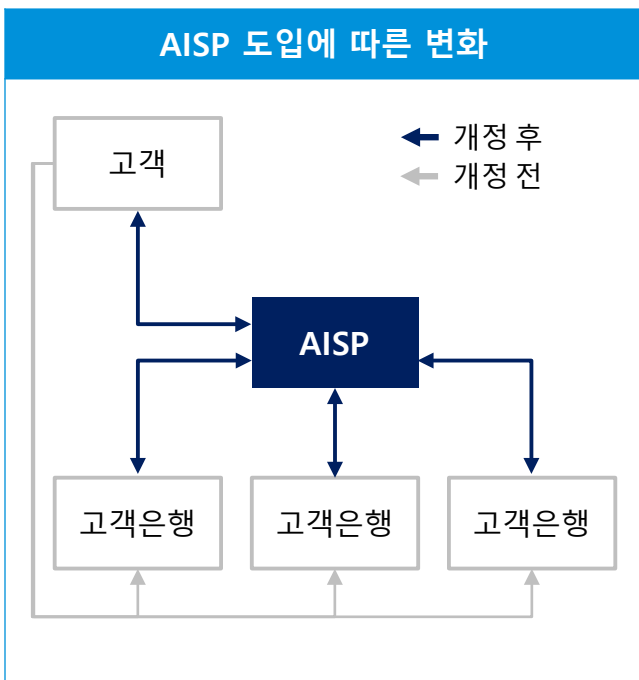
EU와 영국, 고객정보에 대한 오픈 API의 공개 의무화와 정보보호 법제화

EU, 전 은행권에 대한 오픈 API 구축 의무화, 시장자율적 사항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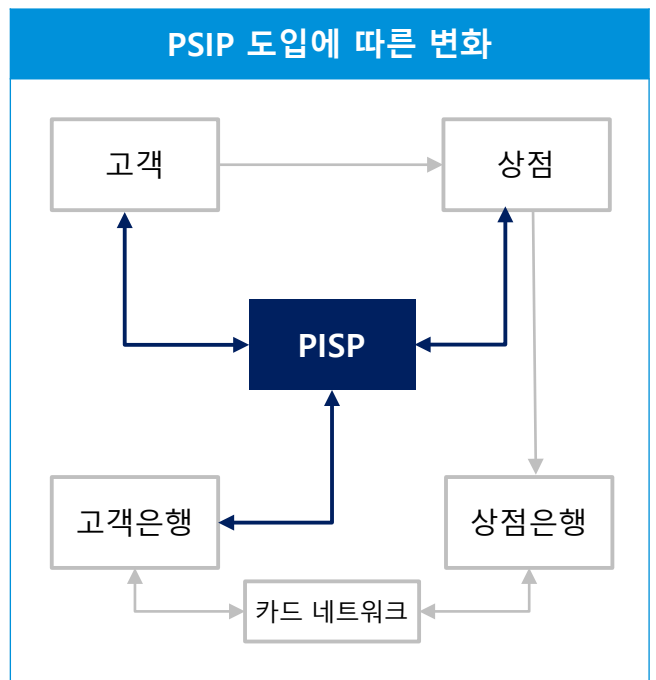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지급결제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 관련 규제인 PSD(Payment Services Directive)에 이어 이를 개정한 PSD2를 2015년 12월 공식발표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시행중인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는 '개인정보이동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보 주체인 개인이 은행 등에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한다.

“ EU의 PSD2는 결제사업자의 다양화, 경쟁 구도 개선을 위한 제3자 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여 책임과 의무 부과 ”

기존 PSD는 EU의 단일 지급시장의 형성과 지급 관련 소비자 보호,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07년 제정되었다. PSD에서는 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와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을 정의하고, 지급서비스는 은행 외 비은행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어 PSD2에서는 지급시장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기 위해 지급서비스 범위에 지급개시서비스(payment initiation service)와 계좌정보서비스(account information services)를 추가하여 제3자 서비스 제공기관(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계좌접근권을 명시하였다. PSD2의 핵심은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크게 계좌정보 서비스제공업자(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ASIP)와 지급지시 전달업자(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PSIP)로 정의하여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Source: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Source: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 은행은 고객 동의 하 PISP, AISP에 대하여 각각 실행형과 조회형 API 제공 의무화 ”

금융사는 고객 동의시 AISP에 고객 계좌정보를 API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핀테크기업이 개별 은행으로부터 제휴를 통해 고객 정보를 각각 취합해야 했으나, 이제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다수의 계좌에 집합된 고객 정보를 일괄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PISP는 고객이 지급 결제를 요청할 때, 고객 은행 계좌에서 직접 자금이체 및 결제대행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계좌이체 대행 권한을 가진다. PISP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계약을 맺을 필요 없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이체를 대행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은행이 제3자에게 수취하는 API 이용 건당 수수료도 제한되어, 고객 입장에서 직불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판매자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거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제공하는 오픈 API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손쉽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의미한다.

“ GDPR 적용하여 고객의 정보보호와 인증을 위한 방안도 마련 ”

한편 API 공개를 통해 데이터 보안 위반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GDPR을 적용하여 정보보안과 고객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금융 보안과 관련하여 모든 지급서비스 제공기업은 온라인 지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연단위로 증빙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원칙이나 동의요건 등 GDPR의 요건을 심각히 위반하여 적발되면 연간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거래 승인시 지식기반, 소유기반, 생체기반 인증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고객이 인증을 해야 한다.

PSD2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규제기술표준안(The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RTS)이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RTS에서는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API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RTS에서는 은행이 제공하는 API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반면, 은행과 제3자 간 API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하여 계좌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은행의 API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들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19년 4월말 기준 EBA Payment Institutions Register에 따르면 미국 지급결제업체인 Token이 2018년 6월 EU에서 최초로 PISP 라이선스를 취득한 데 이어 Access Systems (UK) Ltd, American Express Payment Services, Asto Digital Limited, Bud, Lunar 등 41개사가 PSI로 인가를 받았다. Bud, Lunar 등은 AIS로도 라이선스를 받은 가운데 총 36개사가 AIS로 라이선스를 받아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영국, 주요 시중 9개 은행에 상품정보까지 포함한 오픈 API 의무화

영국의 경쟁 및 시장 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EU의 PSD2 시행에 대응하고자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 자체 오픈뱅킹 정책을 의무화하였다. 영국은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 동의 하에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고, 비금융기관이 금융산업 내 진입하도록 하여 소수의 대형은행이 지배하는 자국의 금융시장에서 과점화된 리테일 은행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 영국은 오픈뱅킹 정책 추진을 통해 시중 9개 은행에 한정하여 오픈 API 도입을 강제 ”

영국의 오픈뱅킹 정책은 9개 주요 은행(AIB, Bank of Ireland, Barclays, HSBC, Lloyds, NBS, Northern Bank, Danske Bank,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Santander)은 공동 API 프레임워크(Common API Framework)를 채택하여 고객 동의시 API를 통해 잔액정보, 거래기록 정보 등 계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의 오픈뱅킹과 PSD2는 고객 동의시 계좌정보를 제공한다는 기준은 같으나, 1) 영국의 경우 9대 주요 은행 계좌에 적용되며 단일 API를 통해 데드라인에 맞추어 진행되며, 2) EU의 PSD2는 EU 내 모든 지급결제 계좌에 적용되며 시장 자율적 API를 통해 유예기간 18개월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2018년 9월 영국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는 기술사양, 보안, 고객 지침, 적합성 및 인증 등에 관한 API 표준요건을 담은 'Open Banking Standard 3.0'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은 계좌 및 거래 내역, 자금 확인 등 조회형 API와 실행형 API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영국의 오픈뱅킹과 EU의 PSD2 비교		
	오픈뱅킹	PSD2
적용 대상	• 영국 9대 주요 은행의 계좌	• EU 내 모든 지급결제 계좌
API	• 단일 API	• 시장 자율
규정 준수	• 데드라인에 맞춰 진행	• 유예기간(18개월) 존재

Source: 인터넷진흥원, 한국금융연구원

영국 오픈뱅킹 추진 일정	
날짜	주요내용
2017.07	• 표준 API 사양 발표
2017.08	• 오픈데이터 API v2 발표
2018.01	• 오픈뱅킹 개설 및 롤아웃 • 6주간 테스트런 후 참여자 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2018.03	• API v2 업데이트 • 계좌정보 적용 확대 • TPP에 개인 및 기업고객 정보 제공
2018.07	• 중간보고 및 참여조건 개정
2018.09	• API v3 업데이트 • 모든 지불기능이 있는 상품으로 확대 • 고객 가이드라인 발표
2018.10	• 시스템 성능 보고서 발표 • 고객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Source: 한국금융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현재 영국의 일부 대형 은행에 오픈뱅킹이 도입되더라도 시장 전반에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뱅킹 확산이 더딘 주요 원인은 개인 데이터 보안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은행권의 노후화된 IT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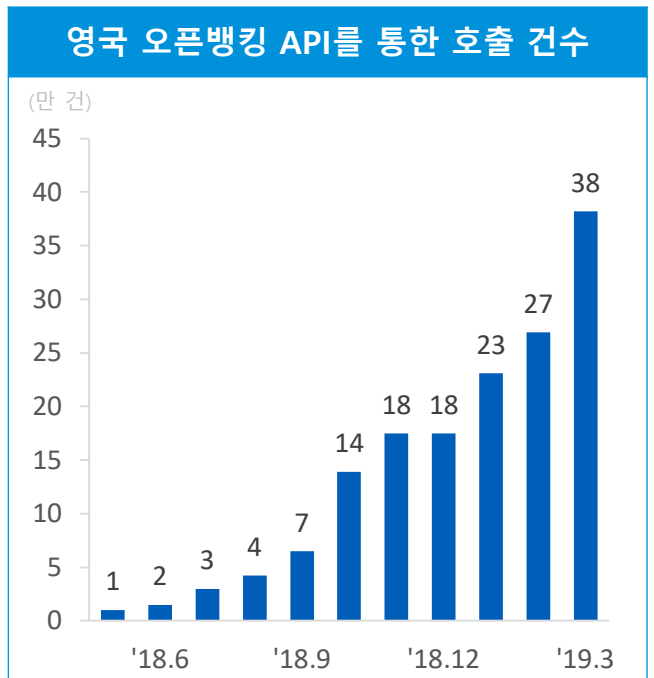
“영국은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존 대형 은행의 동참과 챌린저뱅크의 적극적 참여가 엿보임”

그러나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HSBC는 Open Banking API를 공개하고, 오픈뱅킹 애플리케이션(Connected Money)을 통해 타행계정조회, 가처분 소득 조회, 지출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Lloyd Banking Group은 정책 대응을 위해 분석 기능을 강화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일부 API를 공개하는 등 기존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은 대형 은행들도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영국 오픈뱅킹을 통한 호출 건수는 3,820만 건으로 2018년 말 기준 1,750만 건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2018년 3월말 기준 American Express Payment Services, CitiBank Europe, JP Morgan Chase Bank 등 기존 금융기관 외 Bud, Credit Kudos, DigitalMoney box 등의 핀테크기업 총 78개 기관이 제3자 기관으로 인가 받았다. 또한 ABN AMRO bank, AIB Group 외 Cynergay Bank, Mizuho, Revolut, Sainsbury's Bank, Starling Bank, The Co-operative Bank, Ulster Bank 등 40개 기관이 계좌제공업자로 인가 받아 총 1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픈뱅킹 도입을 통해 예·적금 등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상대적으로 고객기반이 취약한 Cynergay Bank, Revolut, Sainsbury's Bank, Starling Bank 등 챌린저뱅크(Challenger Bank)가 계좌제공업자 인가를 받으며 업무 확장을 꾀하고, 관련 핀테크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 오픈뱅킹 등록 현황	
구분	등록 금융기관
제3자 서비스 제공자	  
계좌제공업자	    

Source: 인터넷진흥원, 한국금융연구원



Source: The 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미국, 시장 자발적 차원에서 금융권의 정보공유를 위한 원칙 제시

미국은 소비자 금융데이터의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금융관련 기구에서 은행과 핀테크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정 행위감소를 위한 자발적인 시장 주도형 정보공유의 프레임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PSD2나 CMA 규정과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검증된 제3자의 API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 미국은 고객 금융 데이터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며, 시장 자발적으로 검증된 제3자의 API 접근을 활용 ”

고객이 금융거래 등 자신의 계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2010년 발표된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에서 소비자가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비자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계좌,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자가 활용하도록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미국 오픈뱅킹에 대한 규정은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2016년 10월 'Project Catalyst Report: Promoting Consumer friendly innovation'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정보접근권에 정보공유의 개념을 포함하여 제3자의 계좌정보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CFPB는 2017년 고객 정보를 수집에 있어 개략적인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비영리 보안 단체인 금융서비스정보공유분석센터(NACHA)는 100여 개의 금융사와 함께 계좌 정보의 공유, 결제, 사기 방지 등을 위한 표준 API의 정의를 발표하였다.

미국 금융서비스정보공유분석센터의 표준 API 정의



사기 및
리스크 감소

- 계정 유효성 검사
- 연방 및 주 세금 납부 수취인 계정 검증
- 은행 연락처 정보 가져오기
- 계정 폐쇄에 대한 알림
- 수취인 및 수취인 신분 확인
- 계정 토큰 요청



데이터 공유

- 신용 결정
- 계정 잔액 가져오기
- 과거 계정 기록 가져오기
- 마케팅 목적
- 통합인증(Single sign on)



페이먼트
접근

-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 거래(Transaction) 상태
- ACH Originators의 금융기관 승인/등록
- 사물인터넷(IoT)
- 실시간 메시징(Messaging)

Source: NACHA,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호주, 조회형 API 공개를 4대 은행에 우선적으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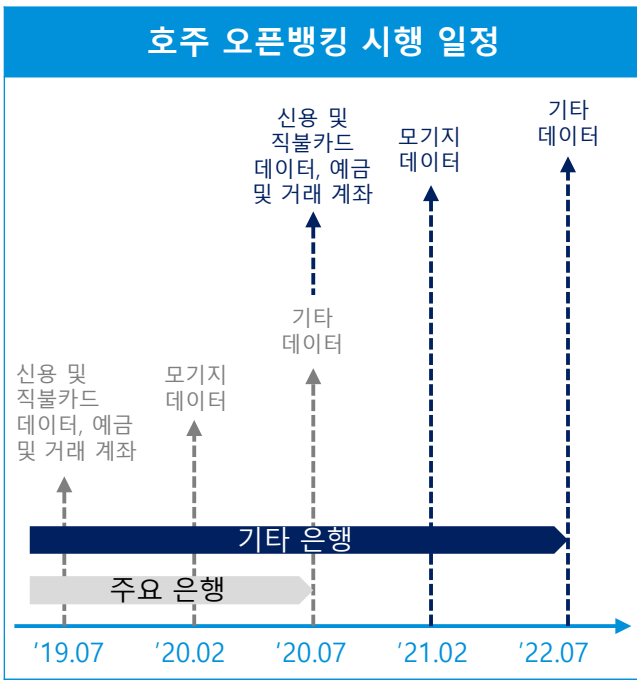
“ 호 주 는 4 대 주요 은행을 시작으로 단계별 오픈뱅킹 의무화, 이는 조회형 API에 한정되지만, 공개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많은 편 ”

2018년 2월 호주 재무부는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권고안으로서 'Review into Open Banking in Australia'에 따라 오픈뱅킹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오픈뱅킹 권고안은 ① 고객중심주의, ② 시장경쟁유도, ③ 기회창출, ④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기본 원칙 하에 오픈뱅킹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체계 및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법제화는 호주 경쟁당국(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이 담당하여 소비자정보권의 개념상 대상 섹터를 결정하고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이 개정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처인 OAIC(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및 금융당국이 지원하며 호주 중앙은행이 자문하게 된다. 연방종합연구소인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는 데이터 표준을 정립하고 호주정보위원회(The Australian Intelligence Community, AIC)는 오픈뱅킹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호주 정부는 소비자정보권을 은행산업에 우선적용하기 위해 오픈뱅킹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에너지, 통신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4대 은행에 우선적으로 오픈뱅킹을 적용하고 이를 확대할 예정이며, 공유하는 데이터의 범위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하나 유의할 점은 호주의 경우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상품 및 대출상품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지급결제 등 실행형 API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조회형 API만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공유 대상 은행상품	
예금상품	대출상품
예적금 계좌	모기지론
미지급 계정	기업금융
정기 예금	개인금융
당좌 예금	현금대출(개인)
입출금 계좌	현금대출(기업)
직불카드 계좌	당좌대출(개인)
거래 계좌	당좌대출(기업)
개인 기본 계좌	소비자 리스
GST 및 세금 계좌	신용카드
종합자산관리계정	자산금융 및 리스(Asset finance/leases)
농장관리예금 계좌	
연금 수령 계좌	
모기지 오프셋(offset) 계정	
신탁 계정	
연금 계좌	
외화 계좌	

Source: 한국금융연구원



Source: hedron management consulting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도입시기는 호주 4대 은행의 경우 2019년 7월(12개월의 기한까지) 신용·직불카드 및 예금·거래계좌부터 출발하여 2020년 2월까지 주택담보 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은행은 12개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7월 전 은행권의 전 금융상품에 대한 API를 공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홍콩·일본, 오픈뱅킹 도입 및 노력 의무 부과

싱가포르,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 발표

“싱가포르는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을 발표하며, 현재 Citi, DBS 등 기존 금융권 및 MAS도 API를 공개”

싱가포르는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을 발표하고 개방형 API를 통해 은행 데이터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금융기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핀테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융데이터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이에 금융 API 안내서(API Playbook)를 발표하여 공통 API 보안 표준과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금융산업 API 등록소(Financial Industry API Register)을 통해 핀테크기업이 개방된 API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내 Citi, OCBC, DBS 등 은행을 비롯하여 지급결제업체 NETS, 감독당국이 API 등록소에 참여하여 거래내역, 고객정보, 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약 313종의 API를 개방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싱가포르 오픈 API 현황		
구분	식별형	비식별형
거래(Transactions)	59	25
고객 정보 및 계좌(Servicing)	32	40
판매 및 마케팅(Sales & Marketing)	25	19
금융상품(Product)	2	49
기타(Others)	3	17
규제사항(Regulatory)	-	42
계	121	192

Source: 싱가포르 통화청

싱가포르 오픈 API 참여기관 현황	
구분	기관/기업
은행(4)	
지급결제사업자(1)	
감독당국(1)	

Source: 싱가포르 통화청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특징적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MAS도 감독과 관련된 API를 개방하여 레그테크(Regtech)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참여 은행 중 DBS와 OCBC가 각각 137개, 76개 항목에 대해 API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DBS는 국가 등록소 외 자체적으로 200개 이상의 API를 개방하여 세계 최대 은행 API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50개 이상의 협업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

홍콩, 표준 API의 제공 권고와 API 종류 및 적용의 단계적 확대

2018년 7월 홍콩금융관리국은 은행이 API로 계좌 및 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Open API Framework'를 마련했다. 홍콩의 오픈 API Framework는 크게 4단계로 나뉘어 도입될 계획이다. 예금, 대출, 기타 은행서비스, 투자, 보험에 적용되며 1단계는 은행상품 및 서비스 정보, 2단계는 고객의 취득 및 신규 신청, 3단계는 계좌 정보, 4단계는 거래처리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오픈 API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Open API Framework를 통해 은행과 핀테크기업 등 제3자가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혁신적이고 통합된 은행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홍콩 은행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밝히며, 대형 소매은행을 주요 대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PSD2에서 표준 API를 설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홍콩은 표준 API의 공개와 기술적 프로토콜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시행 일정은 미정이나, 시행일 기준 각각 6개월과 12개월 후 1단계와 2단계를 시행하고, 3단계 및 4단계의 일정은 감독당국과 은행 간 조율할 예정이다.

“
홍콩은 단계별로 Open API Framework를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 API 마련을 권고함”

홍콩의 Open API Framework 단계별 도입 계획

	I. 은행상품 및 서비스 정보	II. 고객의 취득 및 신규 신청	III. 계좌 정보	IV. 거래처리
예금	예금 상품 정보 조회, 계좌 개설, 계좌 내역 조회, 자금 이체 등			
대출	신용카드·대출 상품 정보 조회, 신청 처리, 한도 조회, 상환 요청 등			
기타은행 서비스	금고 상품·지점 등 상세 조회, 금고 개설, 어음 결제 내역 조회 및 결제 요청 등			
투자	투자 상품 조회, 계좌 개설, 펀드 보유 정보 조회, 투자 거래 주문 처리 등			
보험	보험 상품 정보 조회, 보험 가입, 보험 증권 회수, 보험 금융 약관 변경 처리 등			

Source: 홍콩금융관리국(HKMA),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일본, 은행의 API 공개에 대한 노력 의무화

“ 일본은 은행의
오픈 API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함 ”

일본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유통의 기본 틀을 구축한 뒤, 2017년 5월 은행법 개정을 시작으로 오픈뱅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 공포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 등이 2018년 3월까지 API 이용업체 간 제휴 및 협력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법 시행 후 2년 내에 은행은 API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EU의 의무 부과 방식과 달리 API의 공개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 일본 은행은 고객보호를 위해 은행과 API 이용업체 간 은행법이 정한 내용(배상의 책임, 개인정보 취급 등)을 약정해야 한다. 일본 당국은 2020년까지 110개 은행이 API 공개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한국,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에 이어 오픈뱅킹의 법제화 추진

한국에서도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에 맞춰 오픈뱅킹 도입 및 확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어 고객 정보의 공유를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결제망의 혁신적 개방까지 계획하고 있다. 해외 금융권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API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 국 은
세 계 최 초 로
금 융 결 제 원 과 은 행 및
증 권 사 간 공 동 오픈
플 랫 폼 을 2016년 구 축
”

2016년 세계 최초로 은행권·증권사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

전세계적으로 IT와 금융의 융합(핀테크) 트렌드가 확산되어 소비자 경험, 금융산업의 거래 방식과 경쟁구도가 변모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기조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27일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2015년 3월),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2015년 4월),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국내 허용(2015년 5월),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2015년 6월)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핀테크기업들이 기존 금융기관에 의존하여 사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 및 18개 증권사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	
날짜	주요내용
2015.03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2015.04	• 여 전 법 상 신 용 카 드 의 정 의 에 모 바 일 카 드 가 포 함 여 부 가 명 확 히 규 정 되 어 있 지 않 았 으 나, • 금 융 위 원 회 는 전 자 금 융 거 래 법 상 직 불·선 불 전 자 지 급 수 단 의 정 의 에 모 바 일 카 드 를 포 함 한 다 는 법 령 해 석 결 과 를 토 대 로 불 확 실 성 을 제 거
2015.05	•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2015.06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 시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안성심의가 아닌 자체 보안성심으로 보안 수준 점검 의무를 같음

Source: 금융위원회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추진 경과	
날짜	주요내용
2015.07	• 금 융 위 원 회, 핀 테 크 오픈 플 랫 폼 구 축 계 획 발 표
2015.08	•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 16개 은행, 18개 증권사 참여, 워킹그룹 구성 및 구축 협의
2016.01	• 금 융 권 공 동 오픈 플 랫 폼 구 축 추 진 - 은행권: 금융결제원, 자본시장: 코스콤
2016.08	• 금 융 권 공 동 오픈 플 랫 폼 개 통
2019.	• 은 행 권 이 용 기 관 신 청 접 수 및 서 비 스 운 영 중 - 3,600여 개인 및 기업 개발·테스트 진행 중 - 220여 개 기업 이용 승인 - 32개 기업 계약체결 및 서비스 출시

Source: 금융결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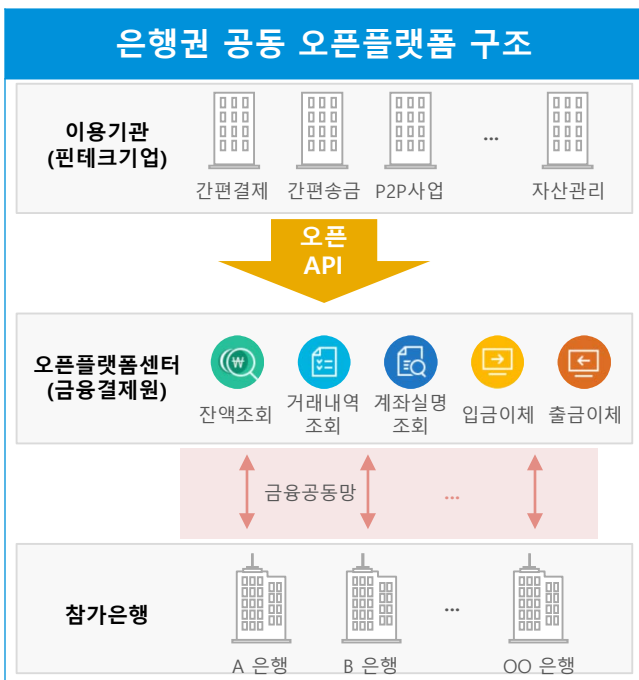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API와,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인프라인 테스트베드(Test-bed)를 더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2016년 8월 30일 개통하였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의 구성 주체는 은행, 오픈플랫폼센터, 이용기관, 일반고객이다. 은행은 오픈플랫폼에 참여하여 자금이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픈플랫폼센터(금융결제원)는 은행권 공동으로 오픈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금융결제원과 오픈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핀테크기업은 오픈 API를 통해 기존 은행의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고객은 오픈플랫폼 서비스 이용 신청을 통해 이용기관이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16개 은행이 참가하고 있으며, 조회형 API 4종과 실행형 API 2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핀테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분류업종 업체,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기타 핀테크지원센터 인정 업체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핀테크기업은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의 경우 크게 6개의 조회형과 실행형 API를 개방하고, 중소 핀테크기업의 활용을 도모 ”



Source: 금융결제원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공동 오픈플랫폼을 통한 주요 오픈 API			
구분	내용	비고	
조회형	잔액조회	고객 계좌 잔액 확인	제3자 정보제공 등의 필수
	거래내역 조회	고객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계좌실명 조회	핀테크기업이 고객 계좌 유효성 및 예금주명 확인	-
실행형	송금인 정보조회	소액해외송금업체가 송금인에 대한 실명확인 수행	소액해외 송금업체 한정
	출금이체	고객계좌에서 핀테크기업 계좌로 출금 지시	추심이체 출금동의 필수
	입금이체	핀테크기업 계좌에서 고객계좌로 입금 지시	-

Source: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오픈뱅킹 법제화와 중장기적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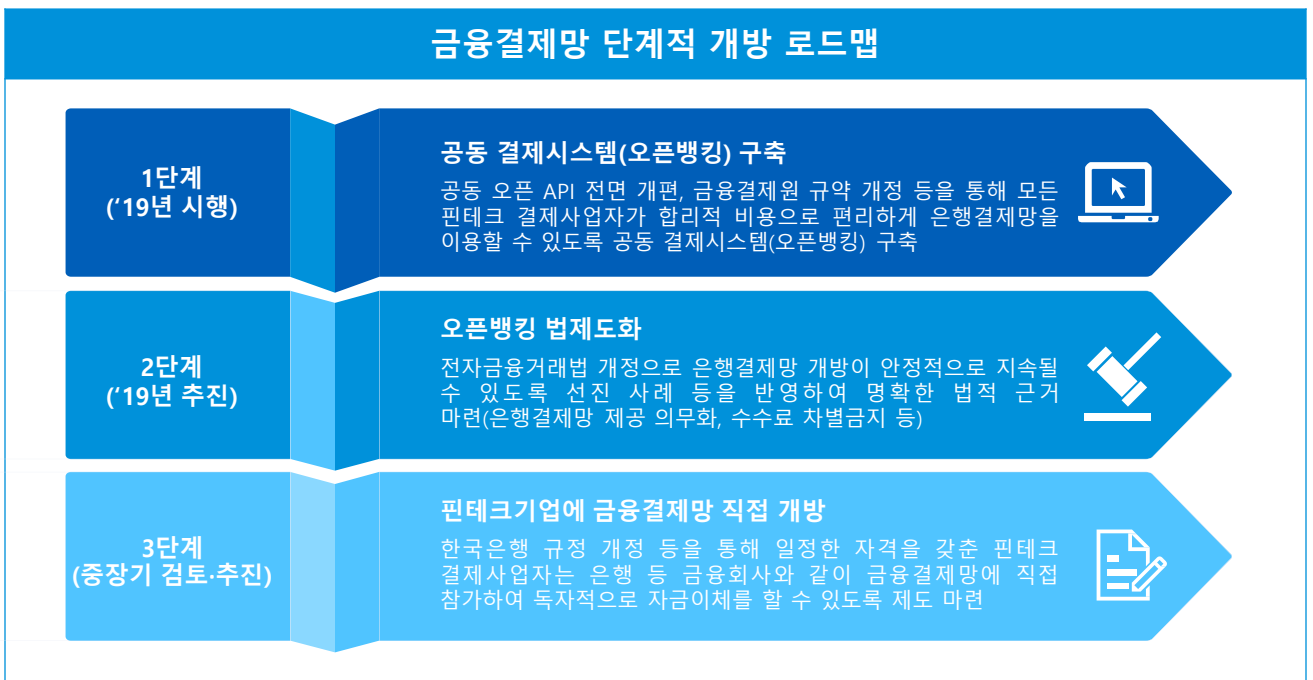
금융결제원 주도로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이용 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기업으로 규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외되어 있는 등 플랫폼 참여 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체 API의 경우 이용료가 건당 400~500원으로 높은 수준이고, 개별 은행에 따라 오픈 API 제공 여부와 그 범위가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지급결제망 API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에 따라 공동 결제 시스템, 오픈뱅킹의 법제화, 금융결제망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오픈뱅킹 구축은 2019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중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전략에 속한 추진과제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결제 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 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동 추진전략의 목적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금융결제망을 (1)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2) 오픈뱅킹 법제도화, (3)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등 3단계로 나누어 개방하고자 한다. 1단계는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오픈 API를 전면 개편하고 금융결제원 규약을 개정하여 오픈뱅킹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국내 모든 시중은행의 계좌조회 및 이체 관련 API를 오픈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



Source: 금융위원회,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2019년 4월 현재 9차례의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를 거쳐 16개 은행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전산테스트를 거쳐 2019년 9월부터 참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기존 핀테크기업은 종전 펌뱅킹 수수료대비 90% 이상 낮은 기본 비용(40~50원)을 적용 받고 영세 스타트업에는 수수료를 추가 할인(약 20~30원대의 비용으로 확정)하여 기존 대비 낮은 비용으로 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다.

“ 2019 년 중 인터넷전문은행 및 모든 은행과 핀테크기업이 공동오픈플랫폼에 낮은 수수료로 참여할 예정 ”

또한 오픈뱅킹을 운영하는 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 확대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금융결제원 외 추가 운영기관과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슈가 되었던 부당인출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총당금과 관련하여 현행 하루 거래량의 300%까지 의무화된 보증은 중소형 사업자의 경우 현행 보증제도를 유지한다. 다만, 대형 사업자는 출금은행이 여러 리스크를 고려하여 보증금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형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9년 내 오픈뱅킹 구축을 완료한 이후 2단계로는 오픈뱅킹 관련 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의 참여, 이용료 책정 등에 있어 제도의 안정성과 항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차별 없이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하여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이다. 이미 EU에서 PSD2 도입(2018년 1월)을 통해 은행 API를 핀테크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에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3단계에서는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직접 개방하여 독자적인 금융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충분한 건전성 및 전산 역량을 보유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계좌 발급·관리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한국은행규정을 개정하는 작업 역시 병행될 예정이다.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글로벌 금융권의 오픈뱅킹 대응

“국제적으로 기존 은행은 BaaP로 진화하며, 핀테크기업은 한 단계 높은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오픈뱅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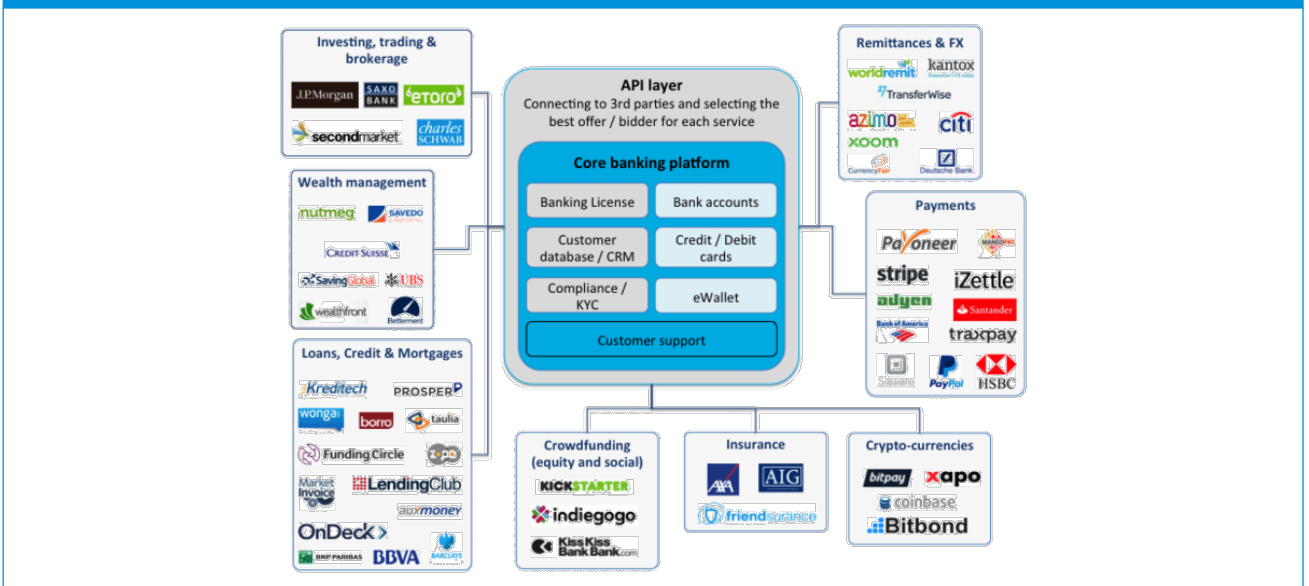
기존 금융권의 BaaP 전환과 핀테크기업의 또 다른 혁신 모색

글로벌 금융권은 은행이 오픈 API를 통해 고객 금융데이터를 비롯하여 은행의 인프라를 API로 제공하면서 은행은 '플랫폼으로서의 뱅킹(Banking as a Platform, BaaP)'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은행은 라이선스, 고객 기반과 데이터, KYC인프라 및 프로세스를 지닌 코어 뱅킹 기능을 지닌다. 이를 중심으로 투자 및 트레이딩, 브로커리지, 자산관리, 대출과 신용 및 모기지, 클라우드펀딩, 보험, 암호화폐, 지급결제, 외환 등 다양한 범위의 API를 제공하며 핀테크기업과 협업 중이다. Citi, Morgan Stanley, UBS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더 나아가 P2P 모델을 통해 성장한 핀테크기업이 자체적인 오픈 API를 제공하며 또 다른 혁신과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시장 모델(marketplace model) 또는 B2B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핀테크기업은 은행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의 파트너이자 은행의 새로운 고객이 되며, 오픈뱅킹을 주도하는 주체로 부각되는 단계에 와있다.

일례로, 데이터 애그리게이터 기업 요들리(Yodlee)는 인스턴트 고객 계정 확인 API, Aggregation API 외 개별 금융기관의 통합 브랜드 지원 Enterprise API, 위치정보 API, 은행 및 계좌 연계 FastLink API 등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환전서비스제공 핀테크기업 Stripe 등은 비트코인 기반 지불 API 등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은행 및 금융권에는 핀테크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그리고 자사가 보유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수요자로서 생태계의 중심에 자리잡는 모습이다.

오픈 API를 통한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대응



Source: Fintech Insider News and Views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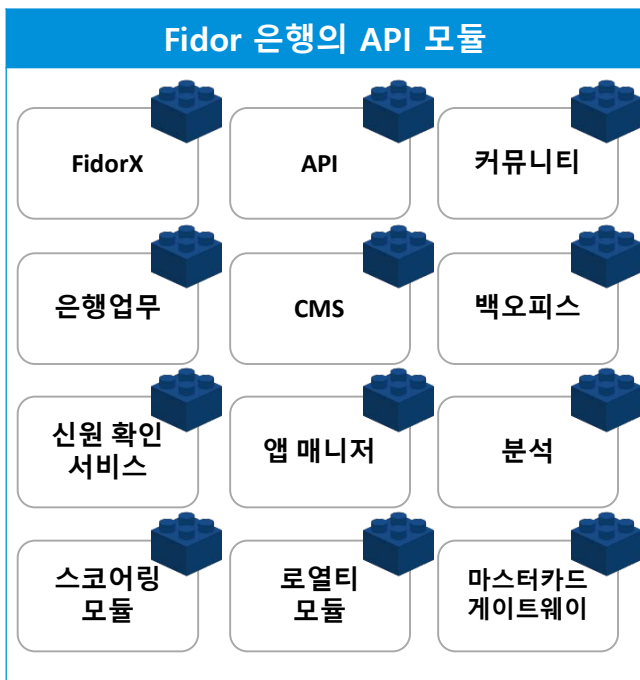
핀테크기업의 오픈뱅킹 활용과 사업화

피도르 은행(Fidor Bank), 핀테크 기업으로서 핀테크기업과 협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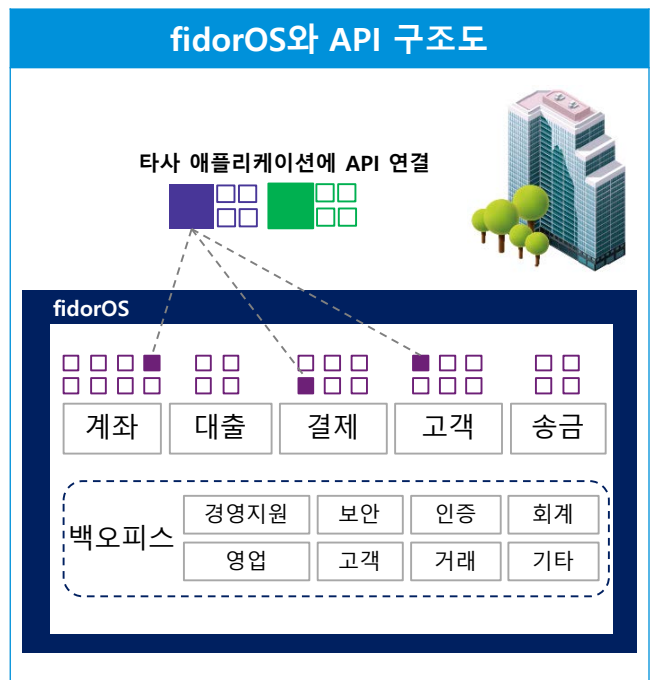
2009년 설립된 독일의 인터넷전문은행인 피도르 은행은 글로벌 주요 은행들과 비교해도 비교적 빨리 오픈 API를 기반으로 핀테크기업들이 자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API를 기반으로 하는 fidorOS라는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핀테크기업들이 banking 시스템 접근을 통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분석, 고객 관리 프로그램, 지불 솔루션, 콘텐츠 관리 등 기존의 은행업무와 디지털은행업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 핀테크기업들이 오픈 API를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면 피도르 은행은 파트너십을 통해 금융데이터 분석과 예측, 결제, P2P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도 전면적인 오픈 API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기업과 협업 모색 ”

과거 전통적 은행들이 폐쇄된 금융 환경 속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고객 로열티를 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과는 달리, 피도르 은행은 개방성을 무기로 다양한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그 예로 크라우드펀딩 그룹인 시드레스(Seedrs), 개인자산관리 회사인 너트메그(Nutmeg)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피도르 고객은 보다 전문적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등 은행, 파트너, 고객 모두가 윈윈(win-win)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피도르 은행은 행원 40명으로 설립 7년 만에 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수를 30만 명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이는 직원 1명당 고객 7,500명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Source: 한국은행



Source: Fidor Tec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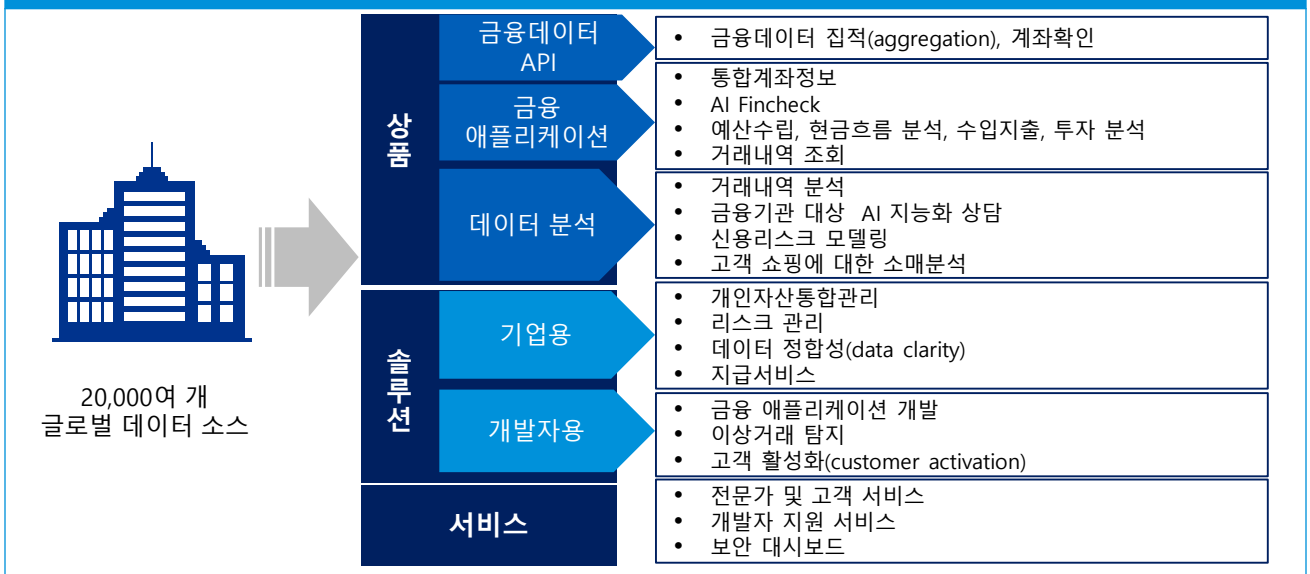
요들리(Yodlee), 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오픈 API 자체를 사업화하며 선순환 구조 구축

미국의 핀테크기업 요들리는 1999년 설립 당시 고객이 요들리 애플리케이션 가입시 스크래핑 방식으로 은행 또는 신용카드 계좌 정보를 취합·통합하여 모든 금융회사의 계좌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머니센터(MoneyCenter)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지출관리, 계좌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성장한 하였다. 최근 요들리 사업 모델은 ① 데이터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또는 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② 오픈 API를 통한 핀테크기업과의 협업이라 할 수 있다.

요들리는 은행 및 카드사 등을 포함하여 2019년 3월말 약 2만여 개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금융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산업별·상품별 API 지원과 데이터 분석서비스,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분석·제공하는 한편, 방대한 자료를 다시 재가공하여 소매업자 또는 투자자, 리서치 회사에 재판매한다. 또한 취합된 데이터를 오픈 API 형태로 Yodlee Data Portal을 통해 핀테크기업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제휴하는 은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수익을 얻는다. 요들리는 데이터 취합과 분석의 플랫폼이자, 다른 핀테크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인에블러(enabl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 10월 미국 나스닥에 기업공개(IPO)를 완료한 이후, 2015년 8월 미국 Envestnet에 5.9억 달러의 기업가치로 인수된 바 있으며, 2019년 3월말 기준 1,1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상위 20개 은행 중 15개 미국 주요 은행과 협력하고 있다.

“ 요들리, 데이터 애그리게이터 및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이어 오픈 API 자체를 사업화하며 확장 ”

요들리의 상품과 솔루션



Source: Yodlee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기존 금융권의 적극적 오픈뱅킹 활용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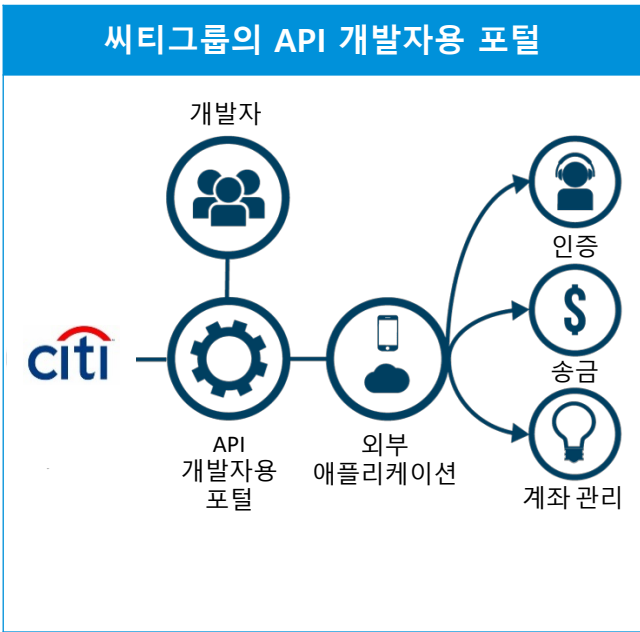
기존 금융권은 전통적인 금융업을 넘어서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 오픈 API를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 주요 금융권은 API의 제공범위는 폐쇄형을 넘어서서 개방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반에게 공개하는 형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려고 시도 중이다. 또한 오픈 API를 넘어 오픈 소스로까지 그 영역을 넘나드는 사례도 엿보인다.

“ 씨 티 , API 개발자용 포털을 통해 핀테크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

씨티그룹(Citigroup), 개발자용 포털 오픈 API 개설 등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외 일반 기업, 핀테크기업 등과의 공존

씨티그룹은 보다 빠르고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11월 API 개발자용 포털을 출범한 바 있다. API 개발자용 포털을 통해 핀테크기업과 씨티그룹 간의 협업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발자들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과 씨티그룹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연결 할 수 있다. 특히, 씨티그룹의 API는 출시 이전에 시험 시연이 가능한 더미 데이터(Dummy data)를 제공하여 개발자가 보다 실전에 가까운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씨티그룹과 서비스 제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씨티그룹은 위와 같은 API를 통해 베스트바이(Best Buy), 마스터카드(Mastercard), 버진 머니(Virgin Money)등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계좌 관리, 송금, 지급, 인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API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미국의 인트윅(Intuit)사는 계좌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고객들의 최신 데이터의 유지 및 보안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씨티그룹의 인증 API와 계좌조회



Source: 씨티그룹, 삼성KPMG 경제연구원

씨티그룹과 API 연계 사례		
업체	API	세부 내용
HKTvmall	포인트 API	씨티포인트 결제
EGL Tour	포인트 API	씨티포인트 결제
AIA	고객 API	재무분석 및 정보 기입 절차 간소화
Octopus	통합, 카드, 이체 API	기본정보 자동기입 씨티카드 연동 결제
Fetch	고객, 카드 API	가격비교, 할부, 잔액확인
Zurich Insurance	고객 API	신청서 작성시 정보 연동

Source: 한국금융연구원,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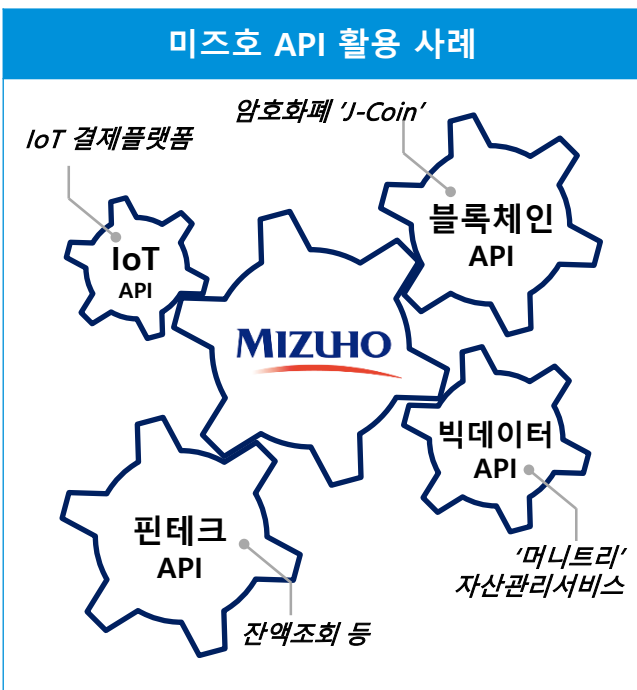
API를 활용하여 고객의 잔액, 만기일 조회, 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가시성이 높은 그래픽 제공 및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취리히 보험(Zurich Insurance)의 홍콩지사는 씨티그룹의 API를 활용하여 고객이 보험 신청서 작성시 정보 연동을 통해 작성 시간을 최대 70%까지 줄였다. 또한 씨티카드를 보유한 홍콩 HKTVmall의 고객은 포인트 API 통합을 통해 홈페이지 내에서 씨티 포인트로도 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18년 3월 개시한 이후 고객의 50%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바 있다.

미즈호 은행(Mizuho Bank), 신기술과 은행의 고객 정보를 API로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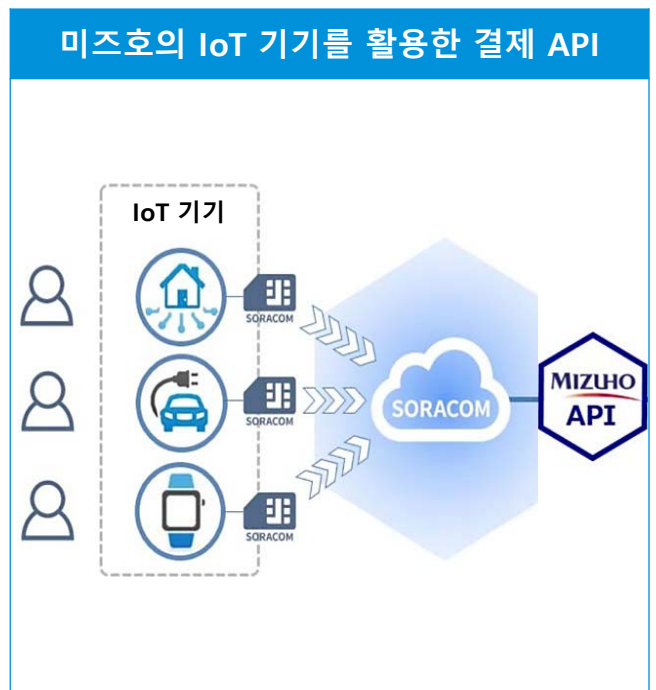
일본의 미즈호 은행은 변화하는 은행 환경에 맞추어 핀테크 및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고객 경험을 향상 시키기 위해 미즈호 API를 론칭한 바 있다. 미즈호 API를 통해 고객들은 미즈호와 파트너십을 맺은 핀테크 및 제휴 기업들의 서비스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외부 핀테크기업들은 미즈호 은행의 빅데이터 API, 블록체인 API, 사물인터넷(IoT) API 등을 통해 은행 내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즈호 은행의 오픈 API는 블록체인, AI, 빅데이터를 하나로 아우르는 API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핀테크 발전을 통해 생활 밀착형 혁신 서비스 창출과 신사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즈호 API 활용의 예를 살펴보면 핀테크기업인 '머니트리'는 미즈호의 빅데이터 API를 통해 고객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미즈호 은행, API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신사업까지 발전하고 있음 ”



Source: 미즈호금융그룹, 삼성KPMG 경제연구원



Source: 미즈호금융그룹,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개발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라콤'은 IoT에 적용할 수 있는 심카드를 통해 미즈호 은행의 API의 접속할 수 있는 IoT 결제 모델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은 미즈호 은행 계좌와 연동된 IoT 기기를 통해 스마트 경기장(Smart Stadium)내에서 상점 결제, 좌석에서의 음식 주문이 가능하며 지문 및 홍채인식 등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해져 입장권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향후 미즈호 은행은 API를 통해 외부 기술과의 융합과 기술역량을 내재화 함으로써 혁신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오픈뱅킹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오픈 API를 넘어 핵심 자원의 오픈 소스 제공

골드만 삭스는 투자 및 증권 업무와 기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미국계 투자은행으로 국내 은행과는 업무 범위 등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골드만 삭스는 핵심 업무인 자기자본 매매(proprietary trading)와 관련된 자사의 주요 자원인 증권데이터베이스(Securities DataBase, SecDB)를 자체적 금융플랫폼 마르키(Marquee)에 오픈 API로 제공하고 있다. SecDB는 280만 개의 포지션과 50만 개의 시장 시나리오에 맞추어 매일 230만 개의 가격을 산출하여 시장 분석과 리스크를 관리·추적할 수 있는 내부 분석 시스템으로 주로 기관투자자에게만 제공하던 서비스였다.

“ 골드만 삭스, Marquee 플랫폼 등에 핵심기술을 오픈 API로 공개, 나아가 오픈 소스를 제공하는 획기적 접근도 시도 ”

그러나 CFO 차베스는 “플랫폼과 IT를 제공하는 대신 고객을 얻는다”는 목적으로 Marquee 플랫폼에 SecDB를 제공하고 금융상품별 투자사이클에 따라 5가지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플랫폼에는 자산운용사와 연금, 헤지펀드 등 주식 및 채권 거래 기관투자자 등이 접속하여 GS Markets(시장 데이터 및 리서치), SIMON(주식연계 파생상품 설계 및 분석), Strategy Studio(포트폴리오 구성), Trade Tracker(사 후 거 래 관 리), Marquee Trader(투자실행)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거래는 골드만 삭스의 계좌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에 더 나아가 골드만 삭스는 2019년 4월 오픈소스 개발자 플랫폼인 기트허브(GitHub)에 자사 트레이더들과 엔지니어들이 증권 가격 측정, 위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코드 중 몇 개를 공유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자신들의 코드를 사용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엔지니어에 연간 1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오픈 API를 넘어선 오픈 혁신을 추구하며 내부 시스템 개발 부서의 경쟁 유도과 새로운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는 집단 지성을 추구하고 있다.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국내 금융권의 오픈뱅킹 대응

은행권 공동 API를 활용한 핀테크기업의 출현

“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의 이용 실적 증가 및 신규 서비스 다수 출시 ”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이 공동으로 만든 공동 오픈플랫폼에서는 개발자 사이트 가입인 1단계부터 서비스 실시 단계인 5단계까지 총 다섯 단계에 걸쳐 실질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은 2019년 2월 현재 32개의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며, 금융결제원은 2019년 중 40개 이상의 서비스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 신규 핀테크 서비스 출시에 따라 2018년 12월 기준 API 이용실적 월 46만 건, 전체 트래픽 월 6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이용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공동 API를 통해 출시된 서비스는 사업자 매출 및 정산금 조회서비스, 환전서비스,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모바일 주의금송금, 자산관리서비스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디자인의 경우, 잔액조회 및 거래내역 조회 API를 활용하여 재무개선 목표 및 최적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E9pay, 하나송금, 한패스 등의 핀테크기업은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API뿐만 아니라 출금이체, 계좌실명조회, 송금인정보조회 API를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핀테크기업이 송금서비스 부문에 공동 API를 활용 중이나, 현재까지 API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 중 이체 API의 경우 선불형 기능만 제공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참여대상이 핀테크 중소기업만으로 한정되며, 이용수수료가 저렴하다고는 하나 영세한 핀테크기업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해당 문제를 완화하는 형태로 2019년 공동오픈플랫폼이 개방될 전망이다.



Source: 금융결제원
Note: 2019년 2월 현재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활용 사례

서비스	기업명
사업자 매출 및 정산금 조회서비스	PG ON
모바일 환전서비스	Travel Wallet,
신용등급분석	Credit me
모바일 주의금송금	피플맥 주문
소액해외송금	하나송금, 한패스,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루피샌드, STAREMIT, 코인샷, E9pay, QSREMIT 등
자산관리	재무디자인
상가청약 입찰보증금 환급서비스	자이청약
회비관리서비스	모핀, bine

Source: 금융결제원
Note: 2019년 2월 현재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국내 은행의 오픈 API 구축과 경쟁을 위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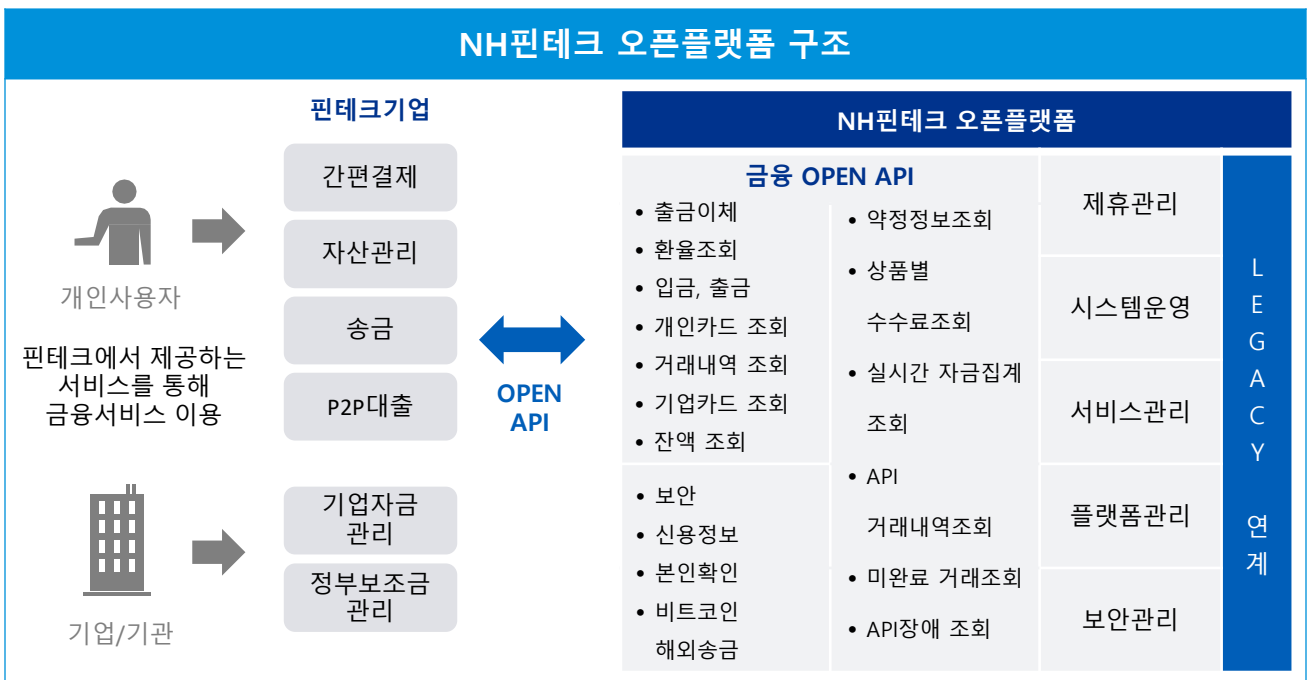
“ 국내 기업들은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외 개별적으로도 오픈 API 플랫폼을 마련 또는 구축 중 ”

국내 기업들 또한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별 금융그룹 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오픈 API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6개 은행의 경우 금융결제원을 주축으로 진행하고 있는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사의 오픈뱅킹에 대한 대응도 기존 금융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인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NH농협은행, 선제적으로 140여 개 API를 제공하여 외부 개발자와 협업 도모

국내 금융권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15년 12월 'NH핀테크 오픈플랫폼'을 출시해 핀테크기업들이 NH농협은행의 AP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 플랫폼으로 현재 조회, 입출금, 카드, 자금관리 관련 기능 등 총 140여 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연간 380만 건의 거래가 NH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통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NH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통해 멘토링 기업 1호로 2016년 5월 NH농협은행의 입·출금 API를 이용한 개인 간 전자차용증 안심송금 서비스 '두리안(Doorian)'이 기브텍을 통해 출시된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P2P자금관리 API', 'P2P금융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원 API' 등 핀테크 분야별로 특화된 API 출시로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의 영역 확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Source: NH핀테크 오픈플랫폼,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 국내 은행은 기업별로 오픈 API 공개 범위는 다양하며, 일부 외부 개발자와 협업을 모색하기도 함 ”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및 외부 개발자와의 협업을 위한 오픈 API 마켓 구축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오픈뱅킹에 대응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핀테크기업 및 일반 개발자들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서비스 API를 제공하는 'Open API Market'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대출, 투자전략, 환전 API 등 16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 고객뿐만 아니라 동 플랫폼 이용자에게도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18년 8월에는 그룹사 내부 통합모바일플랫폼 '신한 플러스'를 출시했다. 신한 플러스는 통합 리워드 플랫폼 '신한 FAN 클럽'과 통합 모바일 플랫폼 '신나는 한판'을 결합한 원스톱 금융 플랫폼으로, 공개형 API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보험사 등 신한금융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87개 주요 서비스 및 통장·카드 동시 개설 서비스 등 그룹사 간 비대면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다. 신한 플러스는 2019년 3월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오픈 API 비즈니스포털 구축에 나서고 있다. 면세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환전 서비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고객 대상 전세대출 한도조회서비스 등을 공개하고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다. 신한은행은 향후 오픈 API 기반 서비스를 외부 개발자가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혀, 오픈뱅킹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Open API Market 제공 서비스			
 <p>미수령보험금 신한생명 숨은 보험금 조회 서비스</p>	 <p>보험계약대출 신한생명 상환이 자유로운 대출 서비스</p>	 <p>상품추천 및 상담 신한생명 고객맞춤 상품 추천 및 상담 신청</p>	 <p>제휴-금투 신한금융투자 제휴</p>
 <p>지점망 안내 지점의 위치정보를 제공</p>	 <p>추천 포트폴리오 매일 선정되는 종목 포트폴리오를 제공</p>	 <p>핫이슈 종목 주식시장에서 특징있는 주식정보 제공</p>	 <p>해외 주식 추천 해외 주식 추천 추천 해외 주식정보를 제공</p>
 <p>인기주식 신한금융투자 고객 조회수가 높은 주식 정보를 제공</p>	 <p>MY HITS 신한금융투자 나만의 트레이딩 시스템 제작</p>	 <p>시장이슈 신한금융투자 시장 이슈리포트 제공</p>	 <p>투자 전략 신한금융투자 국내외 시장 투자전략 리포트 제공</p>
 <p>BIGINSight 신한카드 빅데이터 컨설팅 시스템 빅인사이트</p>	 <p>마이신한 포인트 조회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조회</p>	 <p>클라우드펀드 자금관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 가능</p>	 <p>환전 신한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 전고객에게 우대율이 적용된 환전서비스를 제공</p>

Source: 신한금융그룹 Open API Market,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KEB하나은행, 환전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등 선택적 오픈 API 제공

KEB하나은행은 2018년 2월 외부 기업에 금융 API를 공개하는 비즈니스 개발 플랫폼 'Open Platform'을 구축하고, 제1호 비즈니스로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로 국내대학 등록금의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유학생등록금 수납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어 2018년 5월에는 차량판매 온라인플랫폼 '핀카'에서 자동차 금융상품 '1Q오토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Open Platform에서 사이버 환전, 금융정보 조회, 영업점/ATM 찾기 등 6가지 오픈 플랫폼서비스 패키지(특정서비스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API를 패키지화한 API 그룹)를 선보이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을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핀테크와 금융의 협업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2019년 3월 하나금융그룹 또한 그룹 차원에서 오픈 API를 개발할 계획임을 밝혀 향후에는 그룹 차원에서 오픈 API 플랫폼이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 계열사 간 폐쇄형 API 활용

KB금융지주는 2017년 7월 그룹 계열사끼리 API를 공유하는 그룹 오픈 API를 개발했다. 다만 외부 기업에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며, 클라우드 기반 오픈 플랫폼 '클래온(CLAYON)'으로 외부 개발자들이 은행이 이미 만든 금융 서비스 개발 도구를 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KB증권은 오픈 플랫폼 전략의 일환으로, 2019년 4월 오픈 API 기반 비대면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KB증권 계좌 개설, 국내외 주식 주문, 환전 등 증권거래 시스템에 RA 운용 기능을 합친 서비스다. 앞으로 고객들은 디셈버앤컴퍼니운용과 쿼터백운용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RA와 투자 상담도 할 수 있다. KB증권은 향후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외부 핀테크사와 서비스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다.

1Q 오토론 서비스 구조



Source: KEB하나은행 Open Platform,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오픈뱅킹을 통한 협업과 경쟁의 시대 도래

오픈뱅킹 시대의 본격적 도래

오픈뱅킹이 가져올 금융산업의 지형변화

국내에서는 2019년 중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기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플랫폼의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오픈뱅킹이 시작된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하여 은행결제망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데이터에 대한 제3자의 접근뿐만 아니라 과거 폐쇄적인 금융결제망 역시 중장기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 산업)', 은행과의 제휴 없이 독자적 계좌발급과 자금 이체가 가능한 '종합자금결제업'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러한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는 금융산업의 핵심 축이 고객과 핀테크기업으로 이동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은행권이 가지고 있던 정보와 금융결제망에 대한 독점력을 약화시키고,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에 종속되어 사업을 펼치던 핀테크기업은 은행에 기대지 않고 은행의 고객 정보에 보다 자유롭게,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접근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함으로써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기업은 사업 확장에 장애물이 되었던 금융결제망에 대한 접근성과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사용시 제기되었던 수수료 수준이나 참여자 제한 역시 완화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져 금융서비스의 질로 승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 오픈뱅킹 도입은
금융산업의 축이 고객과
핀테크기업으로
이동되어, 금융산업 내
분업화와 재결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 ”

고객 역시 정보 제공의 주체로서 정보 활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디지털 진전에 따라 높아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개인의 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 카드 상품을 추천하는뱅크샐러드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고객은 '어떤 은행의 대출 상품인가' 보다 '가장 저렴하고 좋은 조건의 대출이 무엇이며, 이를 중개·연결해주는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원한다. 고객은 이러한 니즈를 충족하는 금융서비스를 선택하고, 해당 금융서비스가 특화·분화되고, 고객이 재유입되는 구조로 시장은 재편될 것이다.

지급결제업 중심의 핀테크기업과 고객 기반이 약한 은행에 기회

오픈뱅킹은 고객 기반이 약한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지방은행, 'OO페이'로 불리는 간편송금·결제 부문 핀테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 마련될 공동 오픈뱅킹 확대 방안에서는 기존 중소 핀테크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이 공동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고, 참여기관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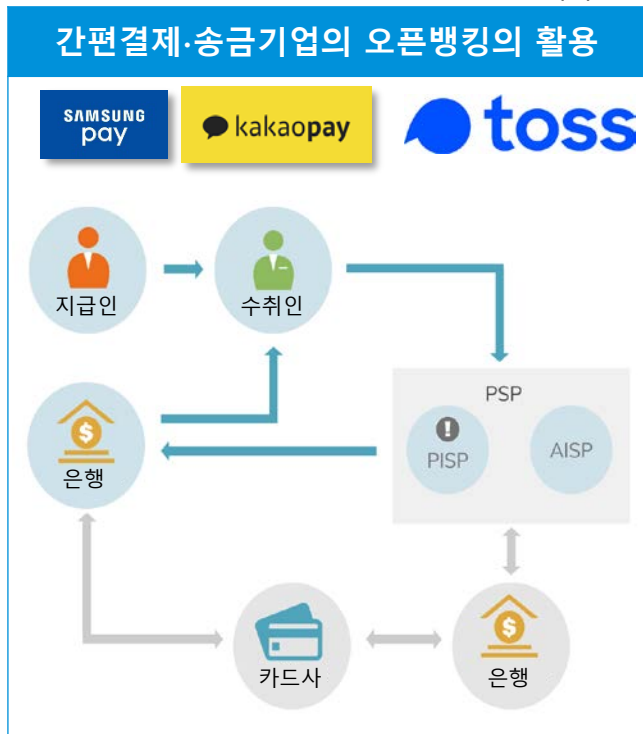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지급결제 사업 중심의 핀테크기업과 고객 기반이 약한 은행에게는 성장의 기회”

은행이 자사 고객 외 타 은행의 고객 결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에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타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나 자금 출금이 가능해진다. 고객기반이 약하지만 편리한 UI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핀테크기업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한다면, 기존 은행 계좌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여 신규 고객을 모으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기업은 금융규제를 우회하고 은행을 통한 보안시스템의 강점을 이용하면서, 오픈 API를 통해 기존 금융사가 구축했던 금융결제망 및 고객 계좌 정보에 보다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일례로 독일의 피도르 은행은 개방성을 무기로 핀테크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데이터 분석, 간편결제, P2P대출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당 운영비용을 대폭 낮추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혁신 서비스의 개발과 설비 최소화, 비용 경감 등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례이다.

특히, 간편결제 및 송금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은 PISP가 도입되면 충전 한도나 송금 한도 규제를 받지 않고 개별 금융기관과의 별도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게 된다. 결제망 사용에 대한 비용도 합리화되어 무료 제공의 횡수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익성 역시 개선될 수 있다. 대표적인 송금·결제 분야의 핀테크기업 '토스(Toss)'는 오픈뱅킹을 구축하면 이용자들이 횡수 제한 없이 송금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Source: 삼성KPMG경제연구원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 은행은 은행과 핀테크기업 모두와 경쟁해야...”

더욱이 지급결제 분야는 고객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채널로써, 다수의 글로벌 핀테크기업이 지급결제 분야로 진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해외 핀테크기업 중 일부는 이미 확보한 고객 기반과 정보를 기반으로 타 핀테크기업에 오픈 API를 제공하며 또 다른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결제송금 분야에서 이미 높은 기업가치로 평가 받고 있는 일부 핀테크기업이 오픈뱅킹으로 인해 더욱 주목 받는 이유이다.

은행은 은행과 핀테크기업 모두와 경쟁해야 하는 위기에 노출

오픈뱅킹의 도입으로 인해 banking 서비스에 대한 역할이 분산되어 은행은 기존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지면서 은행 간 내부 경쟁뿐만 아니라 핀테크기업과의 외부 경쟁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데이터의 제공은 기존 은행이 가지고 있던 핵심 자원의 공유를 뜻한다. 핀테크기업의 성장은 곧 은행 외부의 경쟁자의 증가이며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은행 고객의 결제나 자금이체가 타 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해지므로 은행 간 경쟁 역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혁신의 수용성이 낮다고 평가 받고 있는 은행은 더 이상 과거의 폐쇄적인 전략으로 금융산업에서 존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은행, 위기 속 기회 모색

또 다른 관점에서 은행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금융업에 대한 노하우와 자본력, 정보력을 바탕으로 외부의 혁신적 기술을 가진 핀테크기업과 보다 쉽게 협업할 수 있어 직접적인 R&D 리스크를 줄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와 오픈 API로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를 확충할수록 기존 금융회사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면 채널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오프라인 창구 운용이 축소되면 고정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소지도 있다. 은행은 기존 영업과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코어뱅킹(core banking)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핀테크기업과 협력하여 은행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가' 즉, BaaS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가 여부가 은행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 그러나 은행은 코어뱅킹 기능 중심으로 핀테크기업과 협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여지도 있음 ”

은행, 온라인 채널 강화와 기존 고객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철학과 중장기 로드맵 설정

글로벌 다수의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미 새의 눈(bird's view)으로 ICT 기술의 발전, 고객 채널의 이동, 금융산업의 변화를 포착하고 오픈뱅킹에 대한 중장기적 철학과 로드맵을 사업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오픈뱅킹을 법제화하지 않은 미국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의 확장 기회로 활용하였다. 단순 금융 서비스가 아닌 씨티포인트 결제, 연계된 보험사 상품 가입시 고객 정보 기입 간소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로열티를 제고할 수 있었다.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 은행은 오픈뱅킹 및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해야 ”

미즈호 은행은 코어뱅킹을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과 API 결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처럼 오픈뱅킹은 고객 접점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단일화를 통해 고객 독점성(Customer lock-in)도 높일 수 있었다. 골드만 삭스의 CFO 차베스는 “투자은행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관리할 수 있고, 골드만 삭스와 구글이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철학 하의 핵심 경쟁력인 주식 및 채권 분석 관련 오픈 API를 자사 포털과 외부 개발자에게 공개하기도 하였다.

오픈 API와 관련된 규제 리스크와 보안 리스크 등과 더불어 금융산업의 주도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력을 고려시, 은행이 오픈 API를 개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금융결제망을 포함하여 금융의 패러다임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되고 있고, 내외부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은 ‘온라인 채널 강화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픈뱅킹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BaaS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의 중심에서 다양한 핀테크기업을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생태계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은행은 중장기 로드맵에 적합한 오픈 API 전략 마련

은행이 오픈뱅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수단은 결국 API를 개방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미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통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주요 API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은행은 개방하는 API의 종류와 범위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공동 오픈 플랫폼과 중복성이 낮은 API를 중심으로 개방을 추구하되, 특정 사업 파트너에게만 API를 개방할 것인지, 불특정 다수에게도 개방할 것인지 등은 각 은행이 정한 중장기 오픈뱅킹 정책에 맞추어야 한다. 이때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또는 투자 현황, 협업을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 은행 또는 은행 그룹의 사업 구조, 인적 역량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은행의 오픈 API 전략은 핀테크기업과의 협업과 이를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 은행 사업 구조, 인적 역량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무엇보다 개방되는 API 종류와 범위에 따라 상품개발 등의 분야에서 내부의 역량 개발에 대한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핵심역량을 외부에 의존하다 보면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제공하는 데이터 전달자(delivery)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있다. 협력과 경쟁 간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전산시스템의 확보 등 기술적 준비와 보안 등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고객정보 보호와
보안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역시 준비 필요 ”

기존 금융사 외 핀테크기업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은행 및 관련 기관은 전산시스템을 증설할 필요도 있다. 오픈뱅킹 구축 관련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기존 운영자인 금융결제원이 오픈뱅킹 시스템을 우선 운영하되 추후 운영기관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은 중개시스템뿐만 아니라 은행들끼리도 주고받는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픈뱅킹을 통한 거래가 각 사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사들도 전산시스템을 증설 또는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기관의 확대 등으로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미연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정보 유출이나 금융결제망은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취약한 보안으로 인해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될 경우 기존 금융기관이 이를 책임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된다. 오픈뱅킹에서 보안은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닌 서비스의 완성이다.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Appendix] IDC Insights의 '아시아 태평양 오픈뱅킹 준비도 지수'

영국의 금융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Finastra의 의뢰로 IDC Financial Insights에서 측정한 오픈뱅킹 준비도 지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4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① API 도입, ② 핀테크/제3자 생태계 구축, ③ 데이터 기반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④ 데이터 수익화, ⑤ 혁신 현황 등의 5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IDC Financial Insights는 본 지수를 통해, ▲은행이 자사의 오픈뱅킹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오픈뱅킹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선이 필요한 영역들을 식별함으로써, 은행들이 오픈뱅킹의 도전 앞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사 대상 14개 국가의 지수는 싱가포르(8.1), 호주(7.1), 홍콩(6.6), 뉴질랜드(6.4), 중국(6.4), 말레이시아(6.2), 한국(6.2), 인도(6.1), 태국(6.1), 대만(5.7), 일본(5.5), 필리핀(4.7), 인도네시아(4.0), 베트남(2.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했으며, 높은 API 및 혁신 채택률을 보이고 있으나 데이터 기능을 개선하고 데이터 수익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도입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IDC Financial Insights의 아시아 태평양 오픈뱅킹 준비도 지수								
		API 도입	핀테크/써드파티 생태계	데이터 기반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데이터 수익화	혁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API 도입 외부 API 도입 API 관리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파트너십의 범위 핀테크 파트너십 체결 수 파트너십 카테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디스커버리 역량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준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증대 데이터 생산자로서의 은행 제품 생산자로서의 은행 통찰의 유통자 서비스로서의 통찰의 유통자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도입(프라이빗&퍼블릭) 신기술 도입 비즈니스 혁신 팀 위상 혁신 수준 		
순위	국가	API 도입	핀테크/써드파티 생태계	데이터 기반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데이터 수익화	혁신 현황	전체 평균	
1	싱가포르	선진	선진	선진	중간	선진	8.1	
2	호주	선진	중간	선진	중간	선진	7.1	
3	홍콩	중간	중간	선진	중간	선진	6.6	
4	중국	중간	중간	중간	선진	중간	6.4	
5	뉴질랜드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6.4	
6	말레이시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6.2	
6	한국	선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6.2	
7	인도	중간	선진	중간	중간	중간	6.1	
7	태국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6.1	
8	대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5.7	
9	일본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5.5	
10	필리핀	중간	미흡	중간	미흡	미흡	4.7	
11	인도네시아	미흡	중간	중간	중간	중간	4.0	
12	베트남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2.3	

Source: IDC Financial Insights

Business Contacts

금융산업 전문팀

Advisory

장지수
전무
T: 02-2112-7577
E: jjang@kr.kpmg.com

박용수
전무
T: 02-2112-0421
E: yongsoopark@kr.kpmg.com

조재박
상무
T: 02-2112-7514
E: jaeparkjo@kr.kpmg.com

정우철
상무
T: 02-2112-3079
E: woochuljung@kr.kpmg.com

Deal Advisory

조장균
상무
T: 02-2112-7782
E: changkyuncho@kr.kpmg.com

이진연
상무
T: 02-2112-7435
E: jinyeunlee@kr.kpmg.com

양진혁
상무
T: 02-2112-0432
E: jinhukyung@kr.kpmg.com

Audit

조원덕
전무
T: 02-2112-0215
E: wcho@kr.kpmg.com

조성민
전무
T: 02-2112-0499
E: sungmincho@kr.kpmg.com

권영민
전무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최재범
전무
T: 02-2112-0213
E: jaebeomchoi@kr.kpmg.com

채민선
전무
T: 02-2112-0484
E: mchae@kr.kpmg.com

석명기
전무
T: 02-2112-0415
E: mseok@kr.kpmg.com

전용기
전무
T: 02-2112-0556
E: yjeon@kr.kpmg.com

박철성
전무
T: 02-2112-0437
E: chulsungpark@kr.kpmg.com

신재준
상무
T: 02-2112-0205
E: jaejunshin@kr.kpmg.com

김민규
상무
T: 02-2112-0428
E: mingyukim@kr.kpmg.com

김진귀
상무
T: 02-2112-0223
E: jinkwikim@kr.kpmg.com

kr.kpmg.com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